

작은 일이라도 감사합니다. / 살전 1:2-4

올 한해를 지나면서 가장 감사한 일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무엇인가요?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모든 일이 감사한 일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감사를 확인해볼 수 없을 만큼 감사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매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감사를 꼽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꼭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절망과 낙심, 실패로 인해 좌절하게 될 때 스스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땅과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감사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우리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주목하며 바라봐 주고, 그 수고가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고 바라봐 주는 가족, 친지, 동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작게는 연인으로부터 가족과 가문을 이루고 크게는 나라와 열방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하루하루도 기억하며 함께 할 사람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바라보며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랑이 언어 중에 모든 사람이 느끼는 공통된 사랑의 표현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인간과 함께 있다고 표현됩니다. 유한한 인간의 삶에 무한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직 영글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며 함께 살아가는 좋은 가족과 이웃이 다른 사람이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채워집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시136:1)



예수교 창신교회
대한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종복

서울시 종로구 창신 5길 22 / 02-765-685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부름 ----- 인 도 자

모두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569장 ----- 다 같 이

1.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시다.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대 표 기 도 ----- 말 은 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가족과 친척이 건강하게 하시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지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도록 도와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치료와 풍성과 지혜와 부지런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살전 1:2-4 ----- 다 같 이

2.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특 별 찬 송 ----- 말 은 이

예배 시작 전에 정해진 한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자녀중 한 가정이 해도 좋습니다)

말 씀 ----- 작은 일이라도 감사합시다. ----- 말 은 이

설교문은 뒷면에 있습니다.

축 복 기 도 ----- 다 같 이

각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을 품에 안거나 손을 잡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한 후에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참석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 송 ----- 은혜 ----- 다 같 이

1.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 기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눔 ----- 다 같 이

※ 본문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가족끼리 함께 대화해봅시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 1) 올 한해 동안 가장 감사한 일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 2) 나에게 가장 큰 격려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 3)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낀 일은 무엇입니까?